

독두꽃

2018 | 여름 | 32호

- 독두칼럼**
조광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기획 ① 명사대담**
김명곤 / (전)문화관광부장관
-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사업 소개
- 참여자 유족 인터뷰**
권순정 / 참여자 권승영의 증손자
- 유적지 탐방**
충남 예산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 기획 ② 지역대담**
박성목 / 예산기념사업회 회장

새재를 넘으며

신세훈

문경
새재를 넘다,
해는
슬핏
지는 봄날에,

조령 밤새는
동학년
갑자일
날개 퍼던 새
한양봄 개나리는 아우성꽃이다.

낮새 울음
들리는가 싶다,
문득
밤소쩍새 소리
말 바뀌 우니
상수리 낭랑가지 떨리는가 싶다.

달빛 어스름
속옷고름 어루다,
산신님
오시는 날
눈물꽃은
필까, 무궁 필까.

월악산 이마에
등기
보름달 솟고
푸른 깃길
30리는
아득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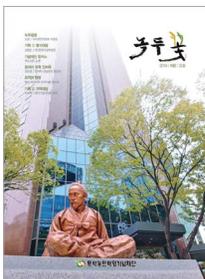
신세훈 申世勳

시인. 경북 의성 출생으로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였으며, 196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조선의 천평선(天平線)』 등이 있다.

작품설명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 계룡산자락 우금치이고,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 소백산자락 문경새재이다. 그래서 충남 공주의 우금치와 경북 문경의 새재는 동학농민군의 한이 맺힌 고개이다. “조령 밤새는 / 동학년 / 갑자일 / 날개 퍼던 새 / 한양봄 개나리는 아우성꽃이다.”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으로 끝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드러낸 시인이 “눈물꽃은 / 필까, 무궁 필까.”라는 의문구로 시를 맺고 있어 읽는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한다.

- 02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신세훈 / 새재를 넘으며
- 00 **녹두칼럼**
조광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00 **포토포픽**
서울 종로,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
- 00 **기획① 명사대담**
김명곤 /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전 문화관광부장관
- 00 **기념재단 포커스**
특별법 시행령 개정, 찾아가는 기념관
기획특별전 '서양인의 눈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 00 **참여자 유족 인터뷰**
권순정 / 참여자 권승영의 손자
- 00 **유적지 탐방**
충남 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서
- 00 **기획② 지역대담**
박성묵 /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 00 **지역단체포커스**
- 00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단체
- 00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목차 제자(題字): 효봉 여태명

표지 설명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서울지하철 종각역 5~6번 출구)에 서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이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기념시설물로 평가받고 있는 이 동상은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가 국민모금을 통해 제작하여 2018년 4월 24일 전봉준 장군 순국 123주기 기일(忌日)에 제막하였다.

인간 평등의 공통분모



조 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근대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는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신분제에 입각한 전근대 내지 중세 봉건사회에서 인간은 결코 평등한 존재가 아니었다. 인간은 오랫동안 이 불평등성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고대사회에서는 지배층이 노예층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행사했다. 물론 역사의 발전에 따라 인간이 혈연을 기반으로 한 신분에 따라 다른 인간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범위는 점차 좁혀져갔다. 그러나 인류사의 대부분은 인간에 대한 불평등성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신분의 불평등성을 본격적으로 극복한 시대를 역사는 근대로 규정하고 있다. 근대사회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형제애가 있다. 이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대혁명 때 제시된 혁명의 모토였다. 프랑스대혁명은 바로 인류의 역사를 중세와 근대로 구분하는 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대혁명이 제시했던 자유와 평등과 박애는 결코 분리된 가치가 아니었다.

자유, 평등, 박애 이 셋은 서로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받아 감염되면, 다른 두 요소에도 그 염증이 전염되어 온전할 수 없다. 또한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한 부분이 특별히 강화되거나 발전하면, 나머지 두 요소도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가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예를 들면 조선후기 우리나라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신분제의 무력화를 위한 광범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조선왕조는 18세기에 이르러 신분제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노비종모법을 통해 노비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권리들이 부분적으로 향상되어갔다. 서얼소통법의 시행은 양반 지배층이 자기 계급을 보전하기 위해 제한을 가해 왔던 불합리한 제도의 붕괴를 뜻했다. 이 상황에서 다산 정약용은 '모든 사람이 다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되기를 바랐다. 이는 신분제를 무력화시켜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보고자 했던 염원의 표현이었다.'

18~19세기 조선왕조의 민중들은 평등에 대한 지향성이 특히 강했다. 선진적 지식인들도 그들의 평등지향성에 대해서 동감을 표했다. 그들은 새로운 종교운동을 통해서 이 평등성을 관철하고 실현시켜보고자 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서학이나 동학 등과 같은 새로운 신앙이 불길처럼 번져나갈 수 있었다. 우선 서학 즉 천주교 신앙의 경우를 보면, 조선왕조는 이를 사학(邪學) 즉 '그릇된 가르침'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탄압해 나갔다. 서학이 사학으로 규정된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신분제적 질서를 부인한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풍토에서 19세기 중엽 수운 최제우는 새로운 종교운동으로 동학을 창도했다. 동학의 여러 이념 중

에서 민중의 주목을 받았던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 일단 동학을 믿게 되면 군자가 되고 신선이 된다는 경전의 구절은 그들의 평등 지향을 가장 명료히 나타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된다. 군자는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지식인들에게 부여된 영예로운 명칭이었다. 신선은 인간의 높낮이가 없는 새롭게 개벽된 이상사회의 구성원을 말했다. 이 군자와 신선이라는 개념은 동학이 지향하던 이상세계의 새로운 시민이었다.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에서는 서학과 동학의 관계를 규정한 바 있다. 즉, 여기에서 논하는 "운(運)은 하나이고, 도(道)도 하나이지만 이(理)는 다르다"라는 말에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구절은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 사회로 바꾸려던 시대정신의 동질성과 인간의 평등에 대한 가르침이 같다는 말이었다. 수운 최제우는 평등을 지향하던 민중의 바람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는 평등이 근대의 기준이 됨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 역사에서 평등을 실천함으로써 근대를 이루려 했던 인물이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었다. 남은 자유를 구가하고자 했고, 북은 평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의 남과 북은 자신의 강조점에 가리어 나머지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둘이 서로 분단된 다음 자신의 강조점마저 잃어버리고 스탈린적 전체주의나 반공 파시즘에 빠져들었다. 이 분단업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한반도에는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를 다지려 하고 있다.

그리하면 우리는 새로운 현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18세기 이후 우리 민중들이 그렇게도 바랐던 평등을 기조로 하여 자유와 형제애를 일으키려던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지난 세기 민중들이나 수운 최제우가 그렇게도 바랐던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개벽의 시대에 접어들어야 하고, 잃었던 남북의 형제애를 회복해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광(趙琿) |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문학박사)를 졸업한 후 동국대학교 사범대 국사교육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용재 석좌교수, 제24대 한국사연구회장,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조선후기 천주교사연구』(1988), 『조선후기 사회의 이해』(2010),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 기적 특성』(2010),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2010),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이해』(2010) 등이 있다.

대한민국 수도(首都) 서울특별시 종로 네거리에 녹두꽃 다시 피다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새로운 이정표 -



▣ 동상 : 청동 1650×1250×1400(H)mm / 좌대 : 화강석 1100(H)mm / 제자(題字) 효봉 여태명

지난 4월 24일, 전봉준 장군 순국 123주기 기일을 맞아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동상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노력과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범국민적인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이사장 이이화)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선시대 전옥서(典獄署) 터(서울 지하철 종각역 5~6번 출구 영풍빌딩 앞)에 세워졌다. 전봉준 장군은 1984년 12월 28일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의금부에 설치된 권설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1895년 4월 24일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부대시참(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이라는 죄목으로 교수형을 받았다.

제막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한승헌 변호사·前감사원장,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정희 천도교령, 이이화 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기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등 각계각층 2,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종로에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은 동학농민혁명 전국화 및 세계화의 새로운 기점"이라는 요지의 축사를 하였다.

동상의 전체적인 형상은 체포될 때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들것에 들린 채 서울로 압송된 후 재판정을 오가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사진 속의 전봉준 장군 모습이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제강점기, 민족분단 등으로 잠철된 한국 근·현대사를 불구(不具)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사의 새벽을 열다가 부상당한 전봉준 장군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이 작품이 큰 울림을 준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화강암 좌대(座臺, 110cm) 위 녹두장군 좌상(坐像, 140cm)으로 이루어진 동상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마치 군중(群衆)이 녹두장군을 떠받드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동학농민혁명이 일제강점기 항일의병과 3·1운동 그리고 해방이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광화문 촛불시민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 지금 여기에 되살아오는' 역사의 현재화(現在化)가 잘 구현된 조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동상 좌대 뒷면 글

전 봉 준(1855 ~1895)

동학농민군의 함성은 1894년 이 강산을 뒤덮었다. 녹두장군 전봉준이 지휘한 동학농민군은 부패한 벼슬아치를 몰아내고 폐정을 바로잡기 위해 봉기하였다. 농민통치기구인 집강소에서 개혁활동을 펼치던 중 일본이 침략 음모를 꾸미자 이를 몰아내려고 전면 재봉기 하였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이 주력인 진압군에게 패배한 뒤 전옥서(한성부 중부 서린방)에 갇혔다. 그리고 권설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내린 다음날인 1895년 4월 24일 새벽 2시에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두한 등 동지들과 함께 교수형을 받았다.

이제 순국 123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성금을 모으고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종로 네거리 전옥서 터에 녹두장군의 마지막 모습을 동상으로 세운다.

2018년 4월 24일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예술가나 창작자들이 문화콘텐츠 창작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그 전체상은 거의 규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연구된 내용을 책이나 강연이 아니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대중적인 문화예술작품으로 제작하여 대중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감동적인 문화예술작품은 혁명의 정신을 머리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다 새기는, 체화(體化)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이점을 깊이 인식해야 정신선양사업 추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시_ 2018년 5월 17일(목) 13:00
장 소_ 전북 무주군 안성면 관내 찻집
대 담_ 김명곤 |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前 문화관광부장관



이번 호 [명사대담]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역임한 김명곤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모셨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독어교육학을 전공하였고,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한 김 이사장은 현재 동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91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개벽」에서 전봉준 장군으로, 「서편제」에서는 판소리선생으로 출연했던 이사장은 2006년 제8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재임 중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경력> 제8대 문화관광부 장관, 세계대백제전 총감독,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등.
<수상>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1993), 영화평론가협회상 남우주연상(1993), 자랑스런 서울시민상(1994), 제1회 현대연극상 연출상(1995) 등.
<저술> 『우리소리 우리음악』(상수리, 2009), 『꿈꾸는 광대』(유리창, 2012), 『격정만리』(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아침이슬, 2000), 『문화의 블루오션을 꿈꾸다』(북큐브, 2006) 등.

문병학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녹두꽃』 명사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근황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김명곤 현재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일은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입니다. 상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를 통해 세종문화회관 여러 가지 업무를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우와 연출가로 활동하는데, 요즘에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명량」과 드라마 「명불허전」에 출연하였고, 최근엔 「신과 함께 2」 등에 출연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 연출가, 작가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이사장님, 대학에서 독어교육학을 전공하셨지요?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는 줄곧 배우나 연극연출가 등으로 활동하셨는데...

김명곤 제가 전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문학 지망생이었어요. 그때부터 독일의 문학과 서구의 예술, 음악에 심취했었지요. 이후 대학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에 입학했고, 대학에 들어가서 독문학, 영문학, 국문학 등을 열심히 공부했지요. 그러던 차에 대학 2학년 때 우연히 연극반에 들어갔고, 이후로 연극에 완전히 빠져서 진로가 많이 바뀌게 되었지요. 연극에 빠져든 후 독일 문학과 연극이 아주 깊이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독일문학의 주류가 희곡이잖아요? 괴테(1749~1832, Johann Wolfgang von Goethe)나 프리드리히 실러(Friedrich von Schiller)와 같은 대가들의 작품들은 거의 다 희곡이예요. 괴테의 『파우스트』는 독일의 민족 설화인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창작한 것인데 알고 보니 괴테가 평생 바쳤더라고요. 괴테가 이 작품을 20대 때 초고를 쓴 후 80세 때 완성했으니까요. 그 작품을 쓰면서 괴테가 자기 조국의 전통, 음악, 설화, 신화 등을 깊이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민족전통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어요. 대학 3학년 때 판소리를 접하고 흠뻑 빠져들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제도권 밖에서 광대, 명인, 명창 이런 분들을 만나 우리 전통예술을 접하면서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와 미학에 깊이 빠져들었지요.

문병학 판소리를 명인이신 박초월 명창께 배우셨지요? 판소리를 배우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요?

김명곤 박초월 선생님은 제게는 정말 잊지 못할 스승이시죠. 대학 3학년 때 친구 따라 김제국악원엘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판소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레코드를 사서 혼자 판소리를 들으면서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 때가 대학 4학년 때였는데, 어느 날 종로를 걸어가는데 눈앞에 '박초월국악전습소'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올라가서 판소리 학원에 등록하고는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박초월 선생님께서 제게 아드님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하시면서 그 대신 판소리 학원비는 안 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선생님과 인연이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이상 이어졌어요.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면서도 늘 명창이 되거나 국악인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판소리를 연극이나 영화로 어떻게 접목시킬까? 줄곧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연극과 판소리를 접목시키려고 마당극에다가 민요나 판소리, 풍물 등을 담아냈지요. 이런 저의 관심이 결국 임권택 감독님 권유로 영화 「서편제」의 시나리오를 제가 직접 쓰게 되었고, 주인공까지 맡게 되었지요.

문병학

1990년대 초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룬 「개벽」이라는 영화가 제작·상영되었는데, 이사장님께서 그 영화에서 전봉준 역을 맡으셨지요?



김명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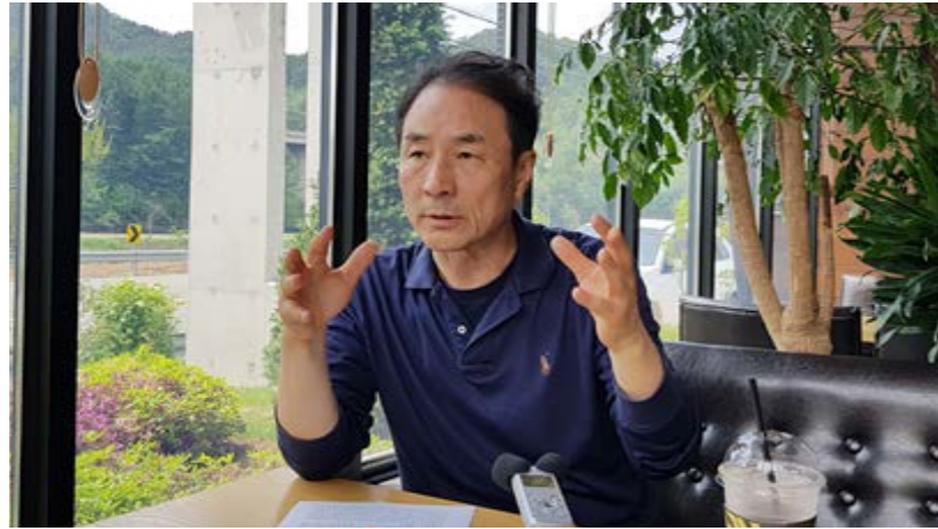
그랬지요. 「서편제」 영화 이전이니까 아마 1991년일 거예요. 임권택 감독님 작품인데 제가 전봉준 장군 역할을 맡았지요. 이 작품 중간에 전봉준 장군이 검가(劍歌)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촬영할 때 다른 가수가 부른 검가를 틀어놓고 노래하는 척 입을 뻥긋뻥긋 거리면서 칼춤을 추는 장면을 연기했어요. 촬영 후 감독님께 그 노래를 제가 직접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했지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놀라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판소리 공부를 좀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직접 노래와 함께 연기를 하게 되었지요. 그때 임 감독님이 제가 판소리를 10여 년 공부했다는 사실과 직접 시나리오도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곧이어 감독님이 「서편제」라는 영화를 기획하시면서 저를 만났고, 제가 그 영화의 시나리오와 주인공 역할까지 맡게 되었던 거예요. 「서편제」를 만들 때 그 작품이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좋은 예술영화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반응을 얻어 국민영화 반열에 올랐지요.(웃음)

문병학

영화 「개벽」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곤

1980년대 후반기 민주화운동의 성장에 힘입어 문화예술 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 양되었지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벽」이라는 영화가 기획·제작되어 1991년에 상영된 거 예요. 도올 김용옥 선생이 대본을 썼지요. 「개벽」은 민족민주운동의 관점보다는 동학 2대 교주 최시형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일종의 종교운동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사회개혁 즉 농민혁명이나 농민전쟁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졌지요. 당시 시대상황의 한계이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그 영화에서 제가 전봉준 역할을 맡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전봉준 장군



은 조연이었어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영화나 방송 드라마, 연극 등을 제작하여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에는 시대적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시대상황과 제반 여건이 좋은 이때 방송사나 영화사 등과 동학농민혁명 주제 드라마나 영화 제작·방영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학

네, 이사장님,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전국의 기념사업단체가 문화관광부 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하였고,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로 동학농민혁명 주제 방송드라마 제작을 위해 KBS한국방송공사 편성제작국과 업무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제가 기념재단의 사무처장으로 일하던 때 논의를 진행했으니까 그때가 2006년과 2007년이었어요. 2007년 여름과 초가을에 기념재단과 KBS한국방송공사 측의 논의가 상당히 무르익었는데, 2007년 겨울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잖아요? 대선이 끝난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방송드라마 제작은 시대상황 특히 정치적 상황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절감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사업은 무엇보다도 갑오년의 역사가 반란사건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한목숨 바친 의로운 항쟁으로 범국민적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드라마나 영화 등 각종 미디어 활용의 필요성을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정치적 상황이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방송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명곤

방송드라마 혹은 영화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범국민적 선양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념재단에서는 방송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 등 각종 미디어 활용의 기반이 될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와 같은 소설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을 상대로 큰 전쟁을 치른 19세기 초 러시아의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영화나 뮤지컬 등 대작(大作)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기념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예술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술가들이 현실과 부딪치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쌓기도 하고 이런 과정의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작이 탄생되는 법이거든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사극이나 영화, 뮤지컬 등 대형작품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은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1980년대 붓물을 이루었던 마당극과 1990년대 「개벽」(영화), 「천명」(창극, 음악극) 등의 축적된 경험이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기념재단에서 '동학농민혁명 주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추진했지요? 응모작품을 심사하기 위해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응모작품들이 참 많이 아쉬웠어요. 대상 수상작의 상금이 1천만원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전문적인 작가들은 아예 공모에 나서지 않았으니까요. 예술작품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좀 뭣하지만 공모전을 하려면 그래도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작이라는 게 꼭 상금이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금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래에 출판된 작품집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문학상이나 창작물을 대상으로 열리는 문화콘텐츠 공모전의 상금이 일반적으로 5천만원, 1억원이에요. 방송드라마의 경우 10부작 내외 분량이면 2~3억원 단위예요. 좋은 시나리오, 대본이 창작되려면 몇 년 혹은 몇 십 년씩 자료 모으고 공부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평생을 바쳤잖아요? 5천만원, 1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여길 수 있는데, 작가들이 몇 년, 몇 십년을 붙잡고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 후에야 좋은 창작물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큰 액수가 아니지요.

문병학

얘기를 조금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후반기부터 1990년대 중반기까지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문화예술공연 작품들이 제작·공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광주의 '신명', 충남 공주의 '우금티' 등 민족극 단체가 주축이었는데, 이 무렵 이사장님께서 민족극운동의 중심에 계셨지요? 이사장님께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신 '갑오세 가보세', 임진택 선생님의 '밥이 하늘이다', 그리고 극단 우금티에서 만든 '우리 동네 갑오년' 등이 생각납니다. 이 무렵의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곤

네, 그랬지요. 그때가 1989년이었어요. 「갑오세 가보세」라는 마당극 작품을 제가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연출까지 했지요. 100년 가까이 반란의 역사, 민란의 역사로 취급되어왔던 동학농민혁명이 80년대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진보적인 문화운동 쪽에서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1988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을 결성하고 그 이듬해에 민족극운동협의회에서 제1회 민족극 한마당을 열었어요. 그때 전국에서 활동하는 문화패들이 함께했지요. 그렇게 시작된 활동이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강화되었지요. 1980년대 후반기에 저와 박인배, 유인택씨 이렇게 세 사람이 전국에서 마당극 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모아 일종의 축제를 열었죠. 1회를 개최한 후 2회는 부산 그리고 3, 4회...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했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다른 작품을 창작하여 선보였지요.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만들어졌죠. 당시 시대상황이 동학농민혁명 주제 마당극을 선호하는 관객층이 많았고, 대학가에서도 초청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민중문화운동의 활기를 불어넣었지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 대부분이 우리의 전통적인 멋을 살리는 것에 기여를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90년대 후반기에 관객들의 취향과 성향이 굉장히 크게 바뀌면서 침체를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병학

제가 1990년대 초반부터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그리고 전북지역 문화예술계에 몸담아왔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제작·공연된 마당극이나 연극, 창극 등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어떤 작품들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초청하여 공연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단체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 초청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들 기꺼이 응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급격히 낮아졌고, 문화예술 공연작품들도 침체기로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곤

그랬어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거의 작품이 제작되지 못했지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문화예술계의 창작활동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인데 도리어 침체가 되었어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100주년 전후하여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은 한 세기 넘도록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어오던 이 사건을 혁명으로 격상시키는 특별법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3월에 제정되면서 다시 분위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갑오년의 역사를 작품화했다면 이제는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가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여건이 크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현재적 의미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중단기적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동학농민혁명 주제 문화콘텐츠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가들이 콘텐츠 창작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그 전체상은 거의 규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구된 내용을

책이나 강의가 아니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대중적인 문화예술작품으로 제작하여 대중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감동적인 문화예술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을 머리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다 새기는, 체화(體化)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이점을 깊이 인식해야 정신선양사업 추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겁니다.

문병학

앞으로 정신 선양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사장님의 좋은 말씀이 깊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4월 24일 전봉준 장군 순국 123주기 기일에 서울 종로구 서울 지하철 종각역 5~6번 출구 앞 인도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을 건립하여 그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갑오년의 역사가 전라도의 지역적 사건이 아니고, 더욱이 반란사건이 아니라 반봉건 민주항쟁이자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반일 민족항쟁이었음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한 이사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곤

제막식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그 이전에 동상 건립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을 건립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더욱이나 국민모금으로 동상이 건립되어 그 의미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장군께서 가신 때로부터 120년이 넘게 걸려 동상이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후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개벽」이라는 영화에서 전봉준 장군 역을 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 영화에도 압송되는 장면이 있어요. 현재 종로에 세워진 동상이 손을 높이 든 입상(立像)이 아니라 들것에 들린 부상당한 전봉준 장군의 좌상(坐像)이라는 점에서 더욱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동상을 건립하는데 문선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몇 분에게 들었어요. 큰일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동상 제막식 때 차원 높은 인간의 품격을 보여준 녹두장군 전봉준 마지막 모습을 담은 작은 마당극으로라도 만들어 올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내내 마음의 빛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문병학

동상건립에 대한 인터넷 기사와 그에 붙여진 댓글들을 보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에 이어 드디어 민중의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이 서울 종로에 들어섰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환영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끝으로 빠뜨린 얘기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서울 종로에 세워진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은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사건이 아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이자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구국애민 정신의 표상임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매우 상징적인 기념시설물입니다. 특별법 입법취지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잘 형상화된 예술작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방송드라마나 영화 제작 등으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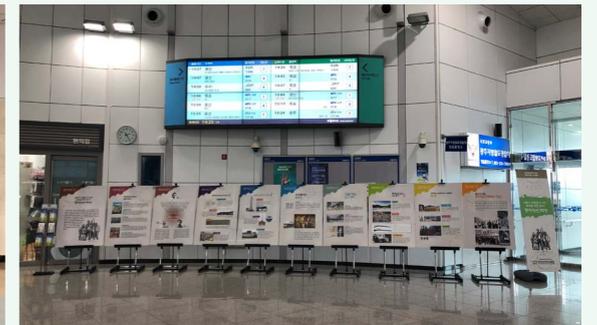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07호) 개정

지난 3월 20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2009년 이후 운영이 중지되었던 참여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의 유족등록 업무가 재개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사항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운영 및 사무처리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한다는 내용 등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찾아가는 기념관' 운영



■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 4.2~4.17



■ 정읍역 전시 | 3.30~4.2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기념관 운영 프로그램의 하나로 '찾아가는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방문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및 행사장 등을 찾아 동학농민혁명 패널을 전시하고 홍보물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기념관'은 지난 3월과 4월 정읍역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각각 전시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주제 창작 국악극 '여인, 1894'공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생생문화재사업'의 하나로 동학농민혁명 주제 창작 국악극 '여인, 1894'를 공연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가난한 농민의 집으로 시집 간 여인의 애절한 삶을 담은 이 작품은 제51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연계하여 5월 12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공연되었다.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원, 정읍시민 등 250명이 관람한 이날 공연장의 분위기는 숙연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특별전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나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무장한 개혁자들과 부르고 싶다.”



전시
패널

- 시선 하나 / 여행가, 무장한 개혁자를 보다.
- 시선 둘 / 외교관, 완벽한 승리자를 보다.
- 시선 셋 / 언론인, 순수한 애국심을 보다.
- 시선 넷 / 선교사, 혁명가의 개혁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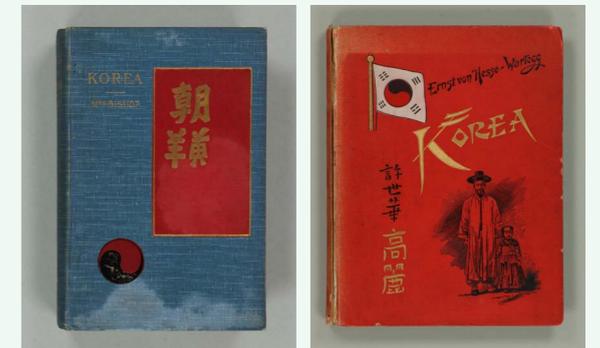
지난 5월 12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기획특별전을 개막하였다. 반봉건 민주항쟁이자 반일 민족항쟁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반란사건으로 왜곡·축소되었다.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들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나 해석은 이 사건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 조선정부나 유럽, 혹은 일본 측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한성이 많았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1894년 당시 조선에 머물렀던 서양인이 직접 겪고 남긴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서양인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조선정부나 유럽, 일본의 기록 등에 나타난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에 머물렀던 서양인들은 동학농민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순수한 애국심(Honest Patriotism), 개혁자들(Reformers), 혁명가들(Revolutionists) 등의 표현을 통해 기본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애국애족정신과 개혁사상을 높이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인들의 눈에 동학농민군은 낡은 봉건체제를 개혁하고 일제의 국권침탈을 막고자 목숨을 걸고 일어난 의로운 혁명집단으로 비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특별전

시선 하나 여행가, 무장한 개혁자를 보다

영국의 여행가이자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1831~1904년), 오스트리아의 여행가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1851~1918년), 독일의 신문기자 루돌프 자벨(1876~1939) 등의 여행기에 기록된 조선의 모습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저술한 책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무장한 개혁자들’이라고 소개한 기록한 대목이 눈에 띈다.



▣ 좌 :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 이사벨라 버드 비숍, 1898.
▣ 우 : 『한국, 아침의 나라에 대한 기억』(Korea eine Sommerreise nach dem Lande der Morgenruhe 1894),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1895.

“... 사람들은 동학농민군이 부패한 관료들과 배반한 밀고자에 대해 우발적으로 봉기한 농민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왕권에의 확고한 충성을 고백하는 그들의 선언으로 판단해 볼 때, 한국 어딘가에 애국심의 맥박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농민들의 가슴속 뿐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다. ... 비록 더 중요한 문제의 등장으로 그 존재가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어느 민란보다는 중요한 운동이었으며 서울과 다른 도시들에서도 그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분도 뚜렷하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지도자들을 ‘반란자들’이라기보다 차라리 ‘무장한 개혁자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

-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사벨라 버드 비숍, 205~208p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특별전

시선 돌 외교관, 완벽한 승리자를 보다

독일의 외교관 막스 폰 프란트(1835~1920년), 러시아의 외교관 제노네 볼피첼리(1856~1936) 등의 저서에 기록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및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외의 결정적인 사건들(갑신정변, 임오군란,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등)을 다뤄 서양인들에게 처음으로 한국을 널리 알린 유명한 개설서 『한국, 은둔자의 나라』(Corea, The Hermit Nation,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1897.)도 전시되어 있다.



‘... 동학농민군은 패주를 가장하여 정부군의 추격을 유도해 교묘하게 위장한 매복 장소로 끌어들였다. 동학농민군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고위 장수 한 명과 병사 300여 명의 손실을 입었다. 다음 날인 5월 31일에는 서울 조정에도 이 참사가 보고되면서 엄청난 불안감이 수도를 휩쓸었다. ...’

- 『청일전쟁』(The China-Japan War), 제노네 볼피첼리, 1896, 61p

‘... 몇 년 전부터 전라도 지방에서는 폭동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러한 기운은 처음에 고종의 외국인 우호정책과 특히 기독교 선교의 허용 방침에 반발한 것이었지만, 관리들의 탐욕과 강탈로 말미암아 더욱 고조되었다. 1893년 봄에 이 지방의 폭도들이 수도 가까이에 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비록 서울에 있는 외국인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하더라도 모든 일은 일본 공사관 측의 공작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폭동을 일본의 이해관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확대 해석하여 자연스럽게 일본의 개입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

- 『동아시아 문제 : 중국 · 일본 · 한국』(Ostasiatische Fragen : China Japan Korea), 막스 폰 프란트, 1897, 238~239p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특별전

시선 셋 언론인, 순수한 애국심을 보다



근대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친한(親韓)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매킨지(1869~1931년)의 저서와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서양 언론 기사를 통해 청일 전쟁 및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한국의 일반 백성의 삶은 노예의 삶과 다를 게 없다. 한국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최근의 반란(동학농민혁명)은 점차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성격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고통에 신음하는 민중의 봉기로서 무자비한 조정의 폭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

- 뉴욕주간 저널 ‘하퍼스위클리’(Harper’s Weekly), 미해군 경리감, 유스터스 B.로저스)

‘... 동학농민군이 표방한 내용은 일본인과 서양인을 한국으로부터 추방하고 권력층의 횡포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의 공통된 견해에 의하면,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중국과 문제를 야기시키려는 일본인들에 의해 조장된 것이었다. ... 한국은 수백 년에 걸쳐서 비밀 결사가 만연하던 나라였다. 이제 동학이라는 집단이 나타나서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집단은 반외세·반기독교적이다. 애당초 유럽인들은 그 훗날 중국에서 살던 유럽인들이 의화단을 인식했던 것과 같은 시각에서 동학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그들을 되돌아볼 때 동학 운동에는 순수한 애국심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

- 『한국의 비극』(Korea's Fight For Freedom), 프레드 아서 매킨지, 1920, 38~44p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특별전

시선 넷 선교사, 혁명가의 개혁을 보다



조선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윌리엄 존 매켄지(1865~1907년),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1859~1921년), 제임스 게일(1863~1937년), 로버트 엘리엇 스피어(1867~1947년), 호머 베잘렐 헬버트(1863~1949년) 등의 저서에 나오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나는 이 동학군들이 견고한 구습을 타파하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완전한 전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은 서서히 자율적인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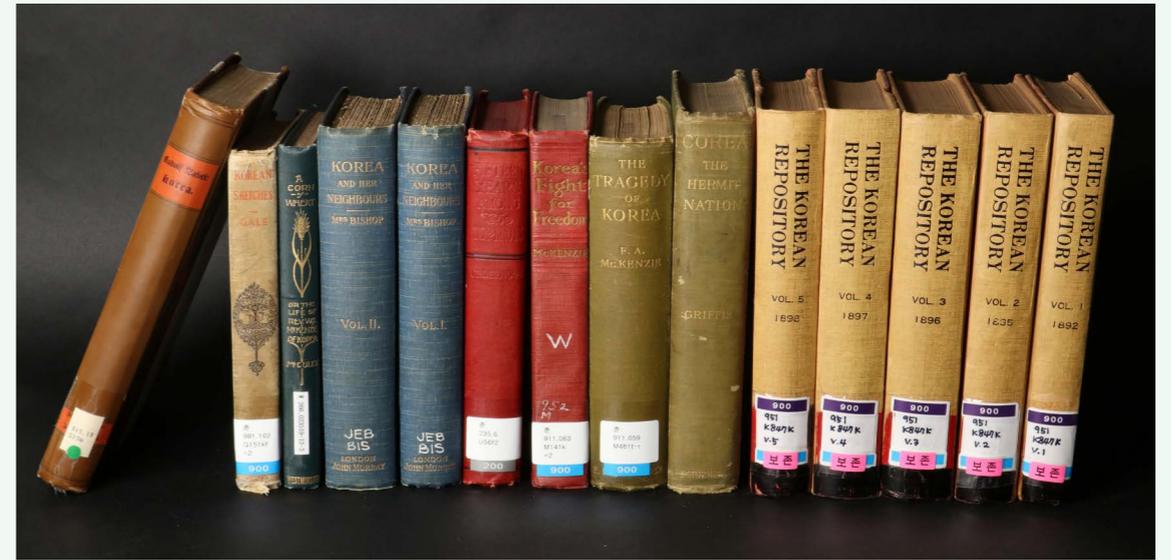
** 윌리엄 존 매켄지가 1894년 11월 초에 서울에 있던 기포드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

- 『한 알의 밀알』(A Corn of Wheat), 엘리자베스 맥컬리, 1903, 167p

‘... 이 집단의 구성원 중 일부는 단지 강도들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못과 억압으로 인한 절망 때문에 격발한 사람들로서, 모든 것을 걸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쟁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 처음에는 왕조에 충성했으나, 정부의 적개심과 백성의 슬픔이 중국의 태평천국군처럼 동학농민군들을 혁명가로 변화시켰다. ...’

- 『극동의 지배』(The Mastert of The Far East), 아서 주드슨 브라운, 1990년대, 60~61p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특별전



‘... 어쨌든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반외세적이다. 의화단 운동은 초기에 동학과 같이 반외세적 성격을 띠었으나, 나중에는 국내의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동학은 후자의 성격을 먼저 띠었다. 그러나 한국에 오랜 세월 내려온 유교적 배타성과 반외세주의 정책은 동학농민군으로 하여금 이방인과 이민족의 출현에 대항하도록 이끌었다.’

- 『선교와 근대 역사』(Missions and Modern History), 로버트 엘리엇 스피어, 1904, 375p

‘... 그러나 12월 일부 일본군대의 원조를 받은 한국 정부는 반란을 진압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다음 해 봄에 반란세력은 꺾여 봉기는 진압되었다. 그래서 비숍 여사가 ‘옛 역사의 사소한 하나의 장’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 사건이 사소하다 보는가? 이것은 깊은 정치적 역암이 표출되어 나타난 하나의 운동이다. 이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생명을 걸도록 만들었다. ...’

- 『선교와 근대 역사』(Missions and Modern History), 로버트 엘리엇 스피어, 1904, 379~380p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권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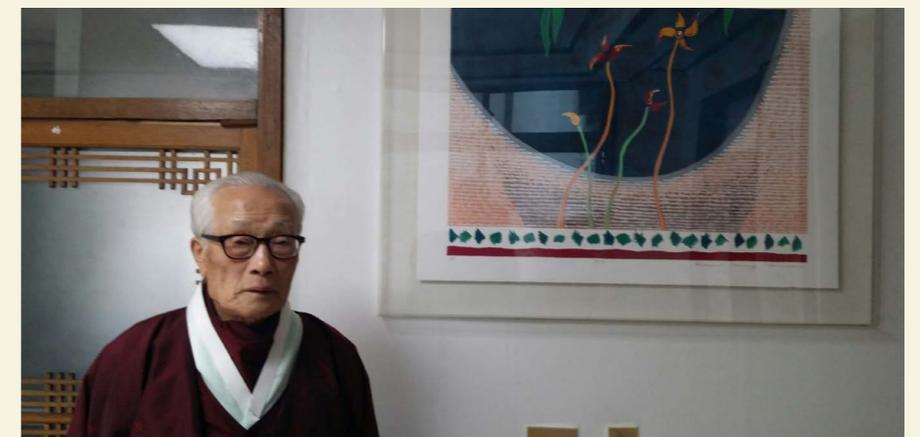
Q 이번 호의 동학농민혁명 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권승영의 증손자 권순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갑오년에 일어난 농민혁명 때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으려 목숨 바쳐 투쟁하신 휘(諱) 권승영의 증손자 권순정입니다. 저는 증조부님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높이 받드는 조부모님과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조부님과 제 부모님께 들은 얘기에 의하면 저의 증조부님은 배를 굶으면서도 많은 재산을 동학농민혁명 동지들에게 식량과 군자금으로 선뜻 내주는 등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셨다고

합니다. 증조부께서는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의의 깃발을 들었는데 죄 없는 죄인이 되어 도망을 다니다가 가족도 보지 못한 채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떻게 순국하신지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어쨌거나 증조부님의 애국심은 조부모님께 그대로 내림으로 이어져 제 아버님을 일본사람이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고, 제 아버지께서도 저를 일본인 학교에 보내지 않아 저는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해방 후 저는 대한민국 군대에 몸담았다가 6·10전쟁으로 대위로 예편한 뒤 행정고시를 준비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창설 업무에 관계한 연고로 충북선관위 사무처장을 역임하였고, 충북 청주에 있는 우암산 기슭의 3·1운동 33인 중 충북출신 6인의 동상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통일국민당 충북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유족회 선배님들과 힘을 모아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많이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참 잘 되었다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 선생님의 감회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증조부께서는 나라와 민족으로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일본군의 불법적인 침략에 국권수호라는 기치를 들고 일본군과 결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이 일본군 총칼 앞에 무참히 스러지고 난 후 우리나라는 왜놈들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은



반란사건으로 왜곡되어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란군으로 몰렸고, 그 후 손들은 반란군의 자손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했습니다. 다행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역사학과와 여러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동학농민혁명사를 바로세우기 시작했고 그런 노력들이 특별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지요. 반란군, 반란군 자손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특별법 제정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학과 연구자들과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념사업단체 임원과 회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언젠,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나요?

A 일곱 살 쯤 되었을 때 조부모님, 아버님을 따라 고조부님과 증조모님 성묘를 갔었습니다. 그때 증조부님의 산소는 어디에 있는지 여쭙보면서 증조부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조부님께서 제게 증조부님은 동학(東學)을 신념으로 삼아 부패한 관리들과 불법침략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는 안 계셨다고 합니다. 부패한 정부가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한 채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은 탓이지요. 그래서 증조부님께서 탐관오리를 제거하고 일제를 몰아내기 위하여 의를 들었다고 조부님께서 제게 직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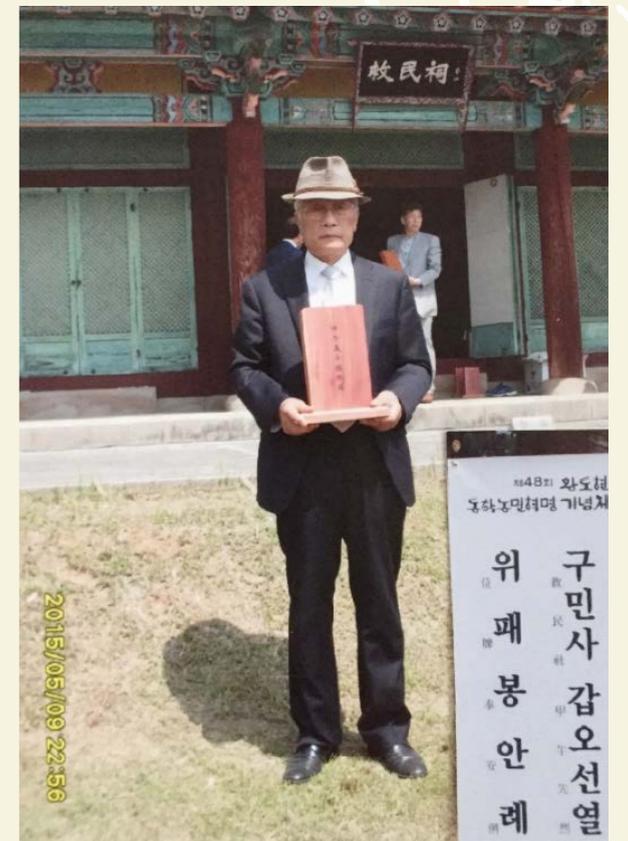
Q 특별법이 제정된 후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여 참여자로 등록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자료 등을 직접 조사하였는지요? 그리고 자료조사 등을 통해 증조부님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심정은 어떠하셨는지요?

A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집안 어른들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고, 제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안동권씨 세보 전15권) 중 제11권 29쪽 기록을 통해 증조부께서 갑오년 당시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조부님의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조부님의 유골을 찾지 못해 산소가 없다는 점이 새삼스럽게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게 패한 후 조부님께서 제천방면으로 떠나셨답니다. 당시 처지를 알 만한 사람들이 왜 놈 앞잡이가 되어 증조부 맥을 밤낮으로 감시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 집을 버리고 소수면 애재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도 또다시 감시자가 따라붙어 다시금 하도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고생은 이

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증조부께서 혁명에 참여하신 바람에 집안은 한순간에 풍비박산 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시면서 겨우겨우 가솔들과 연명하였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그대로 대물림된 삶의 역경 때문에 조부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잠깐이었고, 근본적으로는 차별 없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숨 바친 증조부님이 자랑스럽습니다.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A 증조부님의 조부이신 휘 권재유께서는 1845년 무과제 1인자로 급제하여 질충장군 용호위 부호군의 관직에 올랐으나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여 사임하시고 민심을 읽어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5촌 당숙 휘 권동진께서도 19세에 조선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초관과 함안군수, 거문



■ 황토현전적지 안의 구민사(救民祠)
(*제48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갑오선열 위패봉안례 15.5.10)

도 검사를 지내셨는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임하시고는 3·1운동을 전개 하셨습니다. 셋째 집 형님 휘 권승열께서는 18세에 판임관 시험에 합격하여 조선 민권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해방 후에는 법무부 차장 헌법기 초위원으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장을 역임하셨고, 초대 검찰총장 2대 10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당시 친일파 관료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무장해제 당하여 그분의 대쪽 같은 성격대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반민특위'무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청렴결백했는지 '도시락 장관'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고 해요. 증조부님은 안동권씨 7대 종손으로 할아버님과 5촌 당숙, 셋째 집 형님의 기풍을 이어 받으며 교류하였기에 기본적으로 서민들을 위하고 베푸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에 공감하였습니다. 가풍(家風)을 생각해보면 사상적인 면에서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참여자로 등록하실 때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증조부께서 1895년 제천방면으로 떠난 후 행방불명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A 평소 증조부께서는 증조모님께 바깥일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주 오랫동안 밖에 나가 생활하시면서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던 증조부께서 1895년 1월 17일 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증조부께서는 이미 1860년대 후반기부터 동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71년 경상북도 산간지역인 문경지역에서 활동하던 동학접주 이필(이필제)의 영해농민항쟁 때에도 무기를 사들이고 쌀과 부식을 모아서 문경에 있는 이필제 접주에게 전한 일을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관군과 싸운 일, 증조부께서 괴산연풍 동학농민군들과 천마산성에 군량을 조달한 일, 조령전투에서 패전하고 손병희 선생님이 이끄는 부대를 따라 공주 우금치 전쟁에 참전한 후 화양동을 거쳐 후퇴하던 중 충주에서 관군과 싸운 일 등을 할머니께 얘기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 후 제천방향 아니면 다른 어디론가 갈지도 모르겠다며 집안일을 잘 부탁한다고 증조모님께 말씀하시고는 나가셨는데 그게 마지막 작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조부님께서 떠나신 후 증조모님께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주시면서 내가 떠나거든 모두 불태우라고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증조모님께서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태우지 않고 가지고 계셨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서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증조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할머니님이 부엌 아궁이에 넣고 모두 태우셨다고 합니다.

Q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체제를 개혁하여 만민이 평등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일어난 반봉건 민주항쟁입니다. 나아가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일본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일어난 반일 민족항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어 참여자들은 '역적'으로, 그 후손들은 '반란군의 후손'이라는 멍에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참여자 후손으로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A 동학농민혁명 후손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반역자 집안으로 50년이라는 세월동안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겠지요. 증조모님, 조부모님, 부모님은 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이사하면서 신분을 숨겨야 했고, 재산을 일굴 수도 없었습니다. 따뜻하게 발 녹일 곳 없는 초라한 집에서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배움의 기회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하더라도 집안 형편이 현저히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높은 관직으로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꿰지요. 정신적으로 많이 외로웠습니다.

Q 선생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권승용 증조부님은 물론이고, 이후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의 주역의 한 분이셨던 권동진 선생님이 집안의 어른이시던데... 이런 가풍으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나 정의를 위한 일이라면 의지를 보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A 옛말에 ‘씨 도둑질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타고난 유전자는 못 속인다는 것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10년간 군인으로 생활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항상 약자 편에 서서 일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부대는 보다 원활한 소통으로 다른 부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관으로 일할 때에도 저는 뚜렷한 국가관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적으로 채용과 승진 등에 관여했던 일을 확실하게 경계하여 그런 일에 전혀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시다라는 정의와 성실, 근면과 실천을 생활신조로 살아온 덕분에 군에서 복무할 때 훈장과 표창장 25종을 받았고, 행정관 때에도 훈장과 상장 13개를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상장과 표창장, 위촉장 등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훈장·표창장·상장·상패 등은 어렵고 힘들어도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북돋우는 힘이 자 등불이 되어주곤 합니다.

Q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후 1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그 이후 이어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추진에 대하여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이점에 대해 허심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특별법에 따라 문체부 특수법인으로 기념재단이 설립되어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정신선양사업을 펼치게 된 것이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들은 기념재단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건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혁명에 참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참여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지난 100년 동안 반란사건으로 왜곡된 갑오년의 역사를 자손만대가 계승해야 할 애국애족 정신의 표상으로 제자리를 되찾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혁명에 참여했던 조상님들과 우리 유족들의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념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신선양사업에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념일을 제정하는데 많은 지자체와 기념사업단체들이 얽혀있어서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념일을 정부가 원하는 날로 서둘러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일이 제정되어 정부에서 기념식을 주관하면 아무래도 유족들의 명예를 대중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야 독립유공자로 유족들을 대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들을 제대로 대우할 줄 아는 성숙한 대한민국이었으면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에 걸맞게 유족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 등을 개선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은 참여자 유족 중에서 몇몇은 왜곡된 가치관으로 자기주장을 지나치게 강하게 피력하기도 하는데, 우리 유족들도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모나게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촛불집회 등이 우리 갑오선열님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언행에 좀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의를 들었던 조상님의 훌륭한 정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유족들도 이제는 이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보다 정당한 언행을 통해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남 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서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대홍관아 전경

대홍 관아

- 충청남도 예산군 대홍면 동서리 106-1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74호



대홍관아 동헌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은 1894년 9월 30일 봉기하여 10월 1일에는 서산관아와 태안관아를 점령하였다. 지금의 예산군인 대홍지역에서는 10월 7일 박덕철의 예포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대홍관아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내포지역은 홍주목을 제외한 대분의 관아가 동학농민군에게 점령되었다. 대홍관아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동헌과 일부 건물이 남아 있다. 대홍관아는 1979년까지 대홍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면사무소를 신축하면서 바로 옆 자리인 현재의 위치로 이전·복원하였다.

| 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양상 (1) |

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포지역 전체를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선시대에는 홍주목(지금의 홍성군)이 관할한 충남 서천에서 경기도 평택에 이르는 20여개 고을을 내포지역을 일컬었음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홍성·해미·서산·태안·덕산·예산·신창·면천·당진 등을 내포지역이라고 말한다.

내포지역의 동학(東學) 전파는 1883년 박인호, 박희인을 통해 이루어져 1892년 가을부터 1893년 봄에 전개된 교조신원운동(공주취회·광화문 복합상소·보은취회)에도 참여했음이 알 수 있다. 그러나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1894년 봄 전라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본격화되던 시기에는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충청도 각 관아에서 극심하게 동학을 탄압했던 점과 동학 교단(복잡)에서 계칙문(戒飭文), 금석지전(金石之典) 등을 내려 농민봉기를 단속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양상 (2) |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아산만으로 청국 군대가 들어온 뒤 서해상에서 시작된 청일전쟁과 관련이 깊다. 1894년 여름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점령하고 친일내각 수립한 후 청일전쟁을 도발하자 집강소 활동을 펼치던 전라도 동학농민군이 삼례에서 2차 봉기를 단행, 반일항전에 나섰다. 이때까지도 내포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은 소극적이었는데, 이는 충청도 각 관아의 극심한 탄압과 동학 교단(복잡)이 봉기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9월 18일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 내린 교유문(淸山기포령)이 9월 30일 예산에 도착한 뒤 활발해졌다.

9월 그믐날 내포지역 곳곳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10월 1일 수천 명이 서산관아를 공격하여 군수 박정기 등을 참수하였고, 태안지역에서도 수천 명이 관아를 점령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군 300여명과 관군, 유화군(儒倉軍) 등의 연합부대가 10월 11일부터 농민군을 공격하여 농민군의 기세가 꺾였으나 10월 24일 5만 여명의 동학농민군이 면천(沔川) 승전곡에서 일본군 후비보병 서로군의 1개 소대와 2개 분대를 격파하면서 상황을 반전(反轉)시켰다. 그 여세를 몰아 동학농민군은 25일 구만포전투, 신례원 관작리전투 승리 후 예산관아를 점령, 27일 삼교를 거쳐 28일 오후 4시경에는 홍주성을 포위·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3만여 명이 전사하여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이 잦아들고 말았다.

예포대도소 터



예포대도소 터 안내판



예포대도소 터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성리 410-7, 410-10 일대

1894년 9월 30일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이 기포한 후 예산 목소리(혹은 목시)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지휘본부로 사용하였다.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현재의 위치를 조사·확인하고 '예포대도소(禮包大都所) 터'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 내포(예산)지역의 주요 동학농민혁명 일지 |

1894. 2. 15.	덕산봉기(고덕지역 동학농민군, 내포지역 최초봉기)
1894. 9. 18.	일본군, 조선정부에 농민군 진압 협조 최후통첩 해월 최시형 동학교단 전국 대동원령(청산기포령)
1894. 10. 1.~10.	동학농민군 태안·서산관아 점령 구만리·예산기포, 예포대도소 설치
1894. 10. 21.	목천 세성산전투 참가, 동학농민군 패퇴
1894. 10. 22.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총집결(운산 여미벌)
1894. 10. 24.	면천 승전곡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
1894. 10. 25.	북상을 위해 동학농민군 신례원 관자리 집결(3만여 명)
1894. 10. 26.	관자리전투, 동학농민군 관군을 상대로 대승(大勝)
1894. 10. 28.~29.	홍주성전투, 동학농민군 관군에게 패배
1894. 11. 5.	죽산부사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 부대 예산군 입성
1894. 11. 7.~8.	해미성전투, 매현전투(서산)에서 동학농민군 패배
1894. 11. 12.~	일본군 인천수비대 태안·서산지역 농민군 수색·참살
1894. 11. 15.	일본군 인천수비대, 태안·서산지역 농민군 색출 체포
1894. 11. 16.	태안백화산 교장바위에서 체포된 동학농민군 처형
1894. 11. 18.	일본군 인천수비대(山村부대) 덕산에서 인천으로 철수
1894. 12. 23.	순무영, 충청도 도점주 농민군지도자 안교선(安教善) 효시

송산리 동학농민군 우물 터



동학농민군 우물 터 안내판



동학농민군 우물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송산리 91, 92 일대

반일항전(反日抗戰)의 가치를 들고 봉기한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은 면천 승전곡전투를 통해 일본군을 제압하고, 관자리에서 관군·유회군·향병을 다시 물리친 후 예산관아를 점령하였다. 이후 예산에서 삽교를 거쳐 홍주성으로 향할 때 역촌(현재의 삽교읍 역리, 송산리) 일대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당시 송산리에는 두 곳에 우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 곳만 남아 있다.

역리, 동학농민군 주둔지



역리, 동학농민군 주둔지 안내판



역리, 동학농민군 주둔지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역리 125-23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주성 공격에 나선 농민군이 예산에서 홍주로 향하던 중 하루를 유숙하며 주둔한 곳이다. 동학농민군이 역촌(현재 역리) 뒤뜰과 천변 등지에서 유숙한 사실은 「양호우선봉일기」, 「조석현역사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현재의 위치는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현장에는 2010년 예산기념사업회에서 세운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관작리전적지기념탑 /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관작리 전적지 ▣ 내포 동학농민군 추모비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산 3-1

내포 동학농민군은 1894년 9월 그믐 밤 자시(子時)에 삽교읍 하포리에서 덕의포 총기포령을 내린 후 삽교읍 성리에 예포대도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반일항전을 위해 덕산·해미·온양관아를 습격하여 무기를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10월 11일 관군이 예포대도소를 기습 공격하여 동학농민군이 큰 피해를 입고 서산·태안지역으로 물러났다. 이후 태안·서산지역에 머무르던 동학농민군 2만여 명은 면천 승전곡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하였고, 여세를 몰아 면천과 고덕 상장리·구만리를 돌면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10월 25일 역리에 주둔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은 한양으로 올라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신례원 관작리에 6만여 명이 모였다. 이를 파악한 호연초토사 겸 홍주목사 이승우가 동학농민군의 복상을 저지하기 위해 10월 26일 관군·유회군·향병 등을 모아 농민군을 공격하여 전투가 벌어졌다. 동학농민군이 크게 승리한 이 전투에서 관군대장 김덕경, 장수 7~8인과 많은 유회군·향병이 전사하였다.

춘암상사박인호유허비(春菴上師朴寅浩遺墟碑)



▣ 춘암상사박인호유허비

• (유허비)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 51-1

1985년 천도교중앙총부의 지원을 받아 춘암(春菴) 박인호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안내 표석은 1997년에 설치되었다.

박인호 생가 터



▣ 박인호 생가 터

| 박인호(朴寅浩 1855~1940) |

- 덕의대접주,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 총지휘자

박인호(1855~1940)는 철종 6년 충청도 덕산군 장촌면 막동(현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密陽), 초명은 옹호(龍浩), 자는 도일(道一)이다. 1883년 동학에 입도했고, 1899년 3월 10일 의암 손병희로부터 춘암(春菴)이라는 도호를 받았다. 1893년 2월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의 신원을 위해 전개된 광화문 복합상소 때 손병희, 강시원, 손천민, 김연국 등과 함께 참가하였고, 보은 정내리에서 열린 보은집회 때도 많은 교도를 거느리고 참가하였다.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시기 3만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예산·홍주 등지에서 활약한 박인호는 1894년 11월 해월의 명에 따라 호서지방의 동학농민군 5만여 명을 지휘하여 면천(沔川) 승전곡전투 때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 덕산 구만포전투와 신례원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나 홍주성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여 부대를 해산하고 금오산으로 숨어들어 토굴생활을 하였다.

이후 1908년 박인호는 천도교의 도통(道統)을 계승하여 제4대 대도주가 되었고, 1919년 3·1운동 때 손병희와 함께 거사를 도모하였다. 민족대표 48인 중 한사람으로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 (생가 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114-2

생가는 유허비와 약 100m 정도 떨어져 곳에 생가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현재, 생가 터에는 축사가 자리잡고 있다.

호연초토사이공승우영세불망비(湖沿招討使李公勝字永世不忘碑)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242-3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주목사이자 호연초토사(湖沿招討使)로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의 책임자였던 이승우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이다. 1895년 10월에 세워진 이 비는 원래 예산군 덕치 2리에 있었으나 1980년대 도로확장 공사 때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이승우가 얼마나 잔인하게 동학농민군을 진압·학살했는가는 후임 대흥군수였던 이창세(李昌世)의 군수이후창세애민청덕비(郡守李侯昌世愛民淸德碑) 중 “때 마침 큰 난리를 만나 난적들을 참초하였다(遭時大擾亂賊斬戮)”구절과 권병덕이 남긴 회고(回顧) “홍주목사 이승우와 전라관찰사 이도재는 삼남에 동학군토벌을 대행해야 모조리 진멸하였다. 교도를 잡아다가 목을 베거나 땅에 묻어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죽이기도 하고 총으로 쏘아죽이기도 하고 사지를 찢어죽이기도 하는 그 참혹한 형상과 그 부모처자형제를 연좌로 잡아다가 죽이니 이는 만고에 없는 대 학정이었다.”를 통해 확인된다.



▣ 대흥중학교 앞의 비석들



▣ 이승우영세불망비 (왼쪽부터 세 번째)

| 참고자료 |

- 이진영, 『충청도 내포지역의 동학농민전쟁 전개양상과 특성』, 2003.
- 표영삼, 『東學 2 -해월의 고난과 역정』, 통나무, 2005.
- 박성목, 『예산동학혁명사』, 화담, 2007.
- 『巡撫先鋒陣騰錄』,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21』,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 『洪陽紀事』,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4』,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 『兩湖右先鋒日記』,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조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회를 찾아서



일시_ 2018년 4월 18일(수) 12:00

장소_ 예산기념사업회 사무실

대담_ 박성목 |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문병학

이번호 『녹두꽃』 지역대담에는 충청남도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박성묵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에게 위해 회장님 자기소개와 함께 근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박성묵

요즘 저는 참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낡은 적대관계의 틀 벗어버리고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로 전쟁은 가고 평화의 기쁨이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동학농민군이 그토록 염원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후천개벽의 새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문병학

예산기념사업회는 2006년 초겨울에 갑오동학혁명군 위령제와 함께 갑오동학농민혁명예산군 유족회 창립대회를 개최하였지요? 저도 민간재단이었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자격으로 창립대회에 참석했는데, 불모지나 다름없던 충청도 예산에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진다는 점 때문에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과 함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너무나 추웠다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연혁과 함께 창립 배경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묵

제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갖춘 것이 올해로 12년째입니다. 사료를 발굴하고,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조사연구 기간까지 합하면 근 20년째입니다. 무엇보다 갑오년 시린 들녘을 넘어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들었던 참여자 후손 몇분을 찾아뵙고 정신선양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자 유족분들이 이제야 소원을 풀 것 같으며 기꺼이 동참의지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관작리 전투일인 11월 23일 관작리전투에서 희생된 농민군의 영령을 위무하는 위령제를 시작으로 예산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예산군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문병학

회장님께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인식이 지금과는 다르게 아주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던 때부터 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를 창립하는데 힘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요?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보람도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성묵

당시만 해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아산지역 정서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족들을 만나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신자였던 어떤 분은 동학을 귀신따위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도 각자 종교적 믿음 차이가 분명하여 추진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기념사업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반란사건으로 인식하던 때이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후 유족회나 기념사업회 창립을 위한 준비가 다소 힘을 얻게 되었지요.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 후인 2006년도에 기념사업회와 유족회를 창립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

지만 예산군의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원조례를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작리전투지 기념공원 부지를 마련 등 기쁨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관작리전투지였던 곳을 기념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작리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 예산군 소유의 공유지 약 4,000평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군수(최승우)님을 만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을 제안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기쁨도 잠시 특별법을 근거로 국비확보에 집중했으나 거의 확정을 눈앞에 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난항에 빠지는 듯 하였으나 올해 초에 도시계획법상 '예산동학농민혁명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적은 예산이나마 조금씩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병학

예산기념사업회가 관작리전투지에서 올렸던 위령제의 외연을 넓히고 그 내용도 지역축제 형태로 발전시켜 매년 '내포동학문화제'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언제부터 위령제를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형태로 발전시켰는지요?

박성묵

2013년까지 관작리에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살아 움직이는 기념사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2014년부터 위령제와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대회를 병행시켜 행사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나니 행사가 좀 더 풍성해져서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더군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폭을 더 넓혀서 동학농민혁명을 예산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연계·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공연 등을 접목시켜 '내포동학문화제'로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인 참가자들의 호응을 높이고, 특히 학생들의 참여공간을 확대해나갈 생각입니다.

문병학

동학농민군이 한양을 공격하기 위해 북상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홍주목사였던 이승우가 4~5천여 명의 진압군을 투입하여 전투를 벌였습니다. 관작리전투가 바로 그것인데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크게 승리하였지요? 이 전투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묵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이 목시예포대도소에서 관군에게 습격을 당하고 패퇴한 후 가야산 속에서 혹독한 탄압과 시련을 겪으면서 운산 여미벌에서 죽기살기로 재집결합니다. 이때부터 농민군은 명령지휘체계를 다시 세우고 체계적인 방어전술을 펴면서 진격해오는 일본군을 상대로 면천 승전목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 한양진격을 위해 관작리로 집결한 동학농민군이 3만을 넘었습니다. 당시 동학농민군이 기록한 일기를 보면 그 수를 셀 수 없어 '백만대군'으로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관작리 전투는 해월 최시형 선생의 9.18 총기포령이 내려진 이후 내포동학농민군은 사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관작리전투는 승리의 바탕이 충분했던 것이지요. 음력 10월 26일 오전에 시작되어 한나절가량 진압군인 관군, 유희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관군의 대장 김덕경이 농민군에게 사로잡혀 처형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문병학

내포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면천의 승전곡전투(10. 23.)가 있습니다. 일본군을 물리친 동학농민군은 연달아 고덕면 구만리와 예산 관작리에서 승리한 후 10월 28일 오후 홍주성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여 동학농민군은 타격을 크게 입었지요? 이들 전투상황에 대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묵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운산여미벌 재기포로 시작해 중무장한 일본군을 면천 승전목에서 물리치고, 면천읍성에 무혈입성 한 후 고덕 구만리에서 군량미를 보급받아 하포리 춘암 박인호 생가 마을을 거쳐 오가 역촌을 지나 관작리로 이동하여 대승을 거둔 때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포지역 홍주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관아가 동학농민군 수중에 떨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승전고를 울리면서 28일부터 이틀간 홍주성 공격을 감

행하다 동학농민군이 크게 패배하여 스러지고 말았습니다. 홍주성 전투에서 사망한 동학농민군 시신과 색출되어 처형된 사람의 시신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당시 내포지역에서 활동했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묵

대표적인 인물은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총지휘하신 춘암 박인호 선생입니다. 일찍이 동학에 입도하여 내포지역에 동학의 가르침을 포덕하고 조직 기반을 갖춰 보은취회 때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덕의대접주로 임명되어 내포지역 9월 그믐기포를 주도했습니다. 이후 천도교 4대 교주로서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분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으로는 예포대접주 상암 박희인 선생입니다. 서산·태안지역에 동학을 전파하여 동학농민군의 조직적 활동 기반을 제공한 분입니다. 이밖에도 서산의 장세희, 태안의 고정환, 김종희, 덕산의 고운학, 면천의 이창구, 대흥의 유치교, 차경천 예산의 김기태 등 많은 인물들이 접주 또는 수접주로 활동하면서 관군과 유립군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문병학

예산지역에 유적지도 많지요? 유적지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묵

현재 성역화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관작리 전적지(예산동학공원)와 기포 후 최초로 집결하여 대도소를 설치했던 삼교 성리 옛 장촌면소 터와 유숙지 그리고 기포 전까지 도소역할을 했던 춘암 박인호 생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또 대흥관아 점령사건이 일어났던 대흥동헌, 동학농민군 주둔지였던 삼교 송산리 역리, 오가 역촌, 고덕구만리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흥 금곡리에 차경천 접주 유허지, 응봉 주령리 정인교 접주 생가지, 동학농민군이 사용한 우물과 관아세곡미를 탈취해 굶주린 농민들에게 구휼미를 나눠준 터 등이 있습니다.

문병학

2007년 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은 물론이고, 내포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 및 활동했던 참여자 후손들을 연구·조사하여 290쪽에 이르는 책자 『예산동학농민혁명사』를 발행하셨지요? 집필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서 얘기해주실 것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박성묵

제가 예산지역 동학관련 발굴 조사연구를 해서 2007년 『예산동학농민혁명사』를 발간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의욕만 앞세워 발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자료와 전체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바탕을 마련하고자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졸작을 펴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부끄럽습니다. 책을 간행한지도 벌써 10년이 지나서 새롭게 나온 사실과 사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여 증보판을 낼 계획입니다.



문병학

끝으로 못다한 이야기라든가, 기념재단 혹은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묵

한참 의욕을 가지고 활동할 때 우리지역 향교 전교를 지내셨던 어른을 뵈는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식이 꽤 높으신 분으로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분인데 '동학농민군'을 '동비'라고 부르더군요. 한 세기가 지났어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죠. 그만큼 예산지역에서 동학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역사정의를 실현한다는 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먹고 있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좋아지겠지요.

문병학

여러 일들로 바쁘신 와중에도 긴 시간 내서 대담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성묵

원거리임에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이 각 지역의 기념사업단체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단체 포커스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



지난 3월 29일 정읍시 이평면 일원에서 제124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펼쳐졌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고부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매년 2월 15일 추진해왔으나 올해는 조류독감(A) 발병 등으로 연기되어 3월 29일 개최되었다. 정읍시 주최,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기념재단 이승우 이사장,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기곤 이사장 등 내외귀빈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제124주기 김개남장군 순국 추모제



지난 4월 14일, 동학농민혁명 핵심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개남 장군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김개남 장군 묘역에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기념재단 이승우 이사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기곤 이사장,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전해철 이사장,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서현중 이사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지역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지역단체 포커스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대회



지난 5월 1일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백산봉기 기념식이 백산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백산 정상에 있는 '동학혁명백산창의비' 앞에서 헌화를 시작으로 동학농민군 행군 재연, 제124주년 기념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재단 이승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안군 이연상 부군수, 김원철 백산봉기기념사업회 회장, 지역주민, 백산고등학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제124주년 동학혁명 황토현 전승기념식



제124주년 동학혁명 황토현 전승기념식이 5월 11일 정읍 황토현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앞에서 거행되었다. 천도교 주최로 기념사, 환영사, 문화공연(칼노래, 칼춤, 劍舞) 등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천도교 관계자를 비롯하여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 정읍시 김용만 부시장, 김형근 문화관광과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제51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지난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황토현전적지 일원에서 제51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열렸다. 12일에는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에서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를 시작으로 제51회 기념식이 개최되었고, 13일에는 구민사에서 갑오선열 제례 및 위패봉안례가 엄숙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밖에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국역사퀴즈대회, 신(新)만민공동회의, 음악과 함께 떠나는 혁명이야기, 정읍 무형문화재 발표회, 전국농악경연대회, 황토현전국청소년토론회, 짱깨발랄 페스티벌, 우리가락 우리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행사



4월 25일, 전북 고창군 공음면 무장기포지 및 무장읍성에서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가 펼쳐졌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동학농민군 출정식,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무혈입성(재현극)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최효섭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전국 기념사업단체 대표자 및 임원, 천도교 관계자 등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시상된 '제11회 녹두대상'은 서울 종로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한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가 선정되었다.

지역단체 포커스

제124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군 승전기념식



지난 5월 27일 전남 장성군 황룡면 동학농민혁명 황룡전적지에서 '제124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군 승전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조복래),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이상식)가 주최하고, 장성군이 후원한 이날 기념식에는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담양·함평), 김영권 장성군 부군수, 김재완 장성군의회 의장과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기곤 이사장, 기념재단 이승우 이사장을 비롯하여 전국기념사업단체 임원 및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4주년 기념식 및 문화공연



지난 5월 31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경기전(慶基殿) 앞 광장에서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4주년 기념식과 문화공연이 열렸다.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동학농민군 전주성 입성일인 5월 31일부터 동학농민군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까지를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신선양사업을 펼쳐왔다. 올해에도 제124주년 전주입성 기념식, 문화공연, 고등학생 백일장, 전주지역 유적지답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념관 방문단체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친 황토현전적(국가사적 295호)지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교육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 기간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단체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는데, 주요 방문단체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70명), 부산대 사학과(138명),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49명), 설화고등학교(29명), 왕신여자중학교(28명), 밀알두레학교(20명), 광주광덕고등학교(42명), 연산중학교(130명), 한솔초등학교(28명), 공덕초등학교(22명), 정읍북초등학교(25명), 정일초등학교(35명), 보성노인대학(82명), 주천중학교(25명), 김해고등학교(92명), 대인고등학교(129명), 전라고등학교(150명),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80명) 등이다.

1	2
3	

①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② 부산대 사학과 ③ 나주문화원

기념관 방문단체



기념관 방문단체



4	5
6	7
8	9

- ④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⑤ 설화고등학교 ⑥ 왕신여자중학교
⑦ 광주 밀알두레학교 ⑧ 광주광덕고등학교 ⑨ 동학농민기념사업 유적지답사팀

10	11
12	13
14	

- ⑩ 인천미술사동호회 ⑪ 탄탄어린이문화연구소 ⑫ 연산중학교
⑬ 한솔초등학교 ⑭ 아이플어린이집

기념관 방문단체



15	16
17	18
19	20

⑮ 김제 공덕초등학교 ⑯ 보성노인대학수학여행 ⑰ 정읍북초등학교
⑱ 정읍지방법원 ⑲ 정읍정일초등학교 ⑳ 답사친구

기념관 방문단체



21	22
23	24
25	26

㉑ 광주역사도서관 ㉒ 주천중학교 ㉓ 세종시 노인회
㉔ 호남어린이집 ㉕ 김해고등학교 ㉖ 대인고등학교

기념관 방문단체



27	28
29	30
31	32

㉗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㉘ 월남전 참전자회 광산구지회 ㉙ 정읍 동신초등학교
 ㉚ 정읍 수곡초등학교 ㉛ 꼬꼬어린이집 ㉜ 열린케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4월 2일	네이버뉴스	역사의 길, 사람의 길.. 전봉준 동학혁명길..
4월 3일	브릿지경제	그해 봄 광화문 촛불집회부터 동학혁명까지...
4월 11일	아시아뉴스통신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포지 고창군 무장면 꽃길조성
4월 17일	중부뉴스	제62회 백산면민의 날 동학농민후예들의 화합한마당 성황
4월 17일	뉴시스	전봉준장군 동상, 24일 종로네거리에 세운다
4월 18일	New Daily	동학고장 보은 '동학의 열, 선물에 그리다'
4월 18일	새전북신문	서울 종로에 '전봉준 장군 동상'
4월 19일	전라일보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기념행사 25일 개최
4월 23일	새전북신문	전라도 정도일·동학 봉기일 '공휴일' 될까
4월 23일	남도일보	친필편지 확인으로 살펴본 동학지도자 이방언의 삶
4월 23일	원불교신문	충북교구, 보은위령제서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천도
4월 24일	연합뉴스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종로 네거리에...사후 123년만
4월 24일	국제뉴스	동학으로 읽는 우리 근대
4월 24일	전라일보	제51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 황토현전적지 일원에서 개최
4월 25일	전주문화방송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해야
4월 25일	브릿지경제	정세균 "동학농민혁명 자유·평등정신 알릴 수 있는 건 축복"
4월 25일	한국경제TV	동학농민군 '최고 지도자' 전봉준 동상, ... 서울 종로에 '우뚱'
4월 26일	서울신문	전봉준 동상건립위 녹두대상 수상
4월 26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화가 있는 날
4월 26일	충청타임즈	충북동학혁명 정신 기린다
4월 26일	전북일보	고창군,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 기념행사
4월 27일	한국일보	새야 새야 파랑새야
4월 27일	새전북신문	유성엽,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위해 최선 다할 것"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5월 3일	NEWS1	성남시 뮤지컬 '금강 1894' 평양공연 재추진될까?
5월 3일	충청매일	충북동학농민혁명 기념 장승 다시 세우기
5월 3일	전라일보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 기념대회 개최
5월 3일	전북일보	서울로 간 전봉준
5월 3일	경향신문	녹두 전봉준 선생의 동상 앞에서
5월 3일	뉴시스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청소년 교육 강화
5월 4일	한국영농신문	서울 종로의 녹두장군 & 농민대표, 전봉준의 꿈은?
5월 8일	한국농정	동학농민혁명은 영원히 기억된다
5월 8일	한국농정	동학농민혁명, 이젠 빛을 보자
5월 8일	브릿지경제	동학농민운동 격전지 담양 금성산성을 아시나요?
5월 8일	한국농정	집념의 민중사학자, 서울에 녹두꽃을 피우다
5월 8일	서울경제	전봉준과 환구단
5월 8일	국민일보	전옥서(典獄署)
5월 9일	위클리서울	"124년 전의 '반부패·반외세' 농민 함성, '완성의 촛불혁명'으로 승화해나가야"
5월 9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민주자치와 평화시대를 열었다
5월 10일	전북도민일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녹두장군휴게소 내 정읍관광홍보전시관 개관
5월 11일	경향신문	'한반도의 봄' 그 뿌리는 민중..남북 역사학계 교류 기대
5월 11일	위클리서울	"민족 명운 가를 위중한 문제, 동학혁명 본질 꿰뚫어서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5월 12일	연합뉴스	'동학농민군 체험'...황토현동학기념제 12일 정읍서 개막
5월 17일	시사저널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려 '주술의 힘'까지도 빌렸던
5월 17일	서울신문	보물창고 같은 서울사방, 한 달도 안 된 '전봉준 동상'...염상섭 좌상처럼 지정 기대
5월 21일	전남매일	동학농민운동→3·1만세운동→4·19→5·18→촛불혁명
5월 21일	충북일보	청년들에게 동학정신 일깨운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5월 21일	NEWS1	김승수 "동학정신이 5·18로 이어져 촛불시민혁명 부활"
5월 21일	한국경제	'독립운동가' 의암 손병희
5월 21일	새전북신문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스터디 그룹 '녹두교실' 유적지 탐방 운영
5월 21일	한국농정	이루 말할 수 없이 스러져 간 농민들이시여
5월 23일	전북중앙신문	동학농민혁명 원평집강소 환경정비 구슬땀
5월 25일	통일뉴스	'다시 개벽'으로 모두가 '진인'인 시대로
5월 25일	광주매일신문	동학 최후의 전투 '장흥 석대들'
5월 28일	제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월 30일	전북도민일보	2018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행사
6월 4일	투데이안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원평집강소에서 작은음악회행사 열어
6월 4일	축제뉴스	전북대 문화재 돌봄사업단, 김제 원평집강소에서 행사
6월 4일	여행스케치	녹두장군 전봉준이 종로에 선 이유는?
6월 4일	전북일보	전주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기린다
6월 4일	중도일보	동학군 세성산 전투의 현장엔 갑오농민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6월 7일	전북도민일보	정읍 황토현 전적지·동학농민혁명기념관
6월 8일	전남일보	비옥한 호남평야 젖줄... 동학농민운동 일어난 만석보
6월 11일	로이슈	전주화약
6월 12일	봉황망코리아	동학 평등을 노래하다
6월 18일	중앙뉴스	인내천(人乃天)과 민심무상(民心無常)
6월 18일	강원신문	홍천군, 재미난 문화체험 '자작고개의 옛날옛적 이야기'
6월 18일	뉴스웨이	고창군, '청소년동학캠프 2018'진행
6월 19일	특급뉴스	달라진 우금고개 동학혁명 전적지